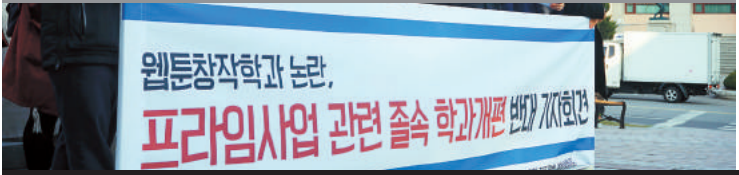


## 4~5》프라임사업 탈락을 바라보는 구성원



## 6~7》불안정한 노동환경 해결책은?



## 우정장학금(가계곤란)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6. 05. 29~2016. 05. 31  
신청자격  
①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해 소득분위 8분위 이하  
② 2016-1학기 복학생은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③ 현재 재학중인 자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용자신청-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계획안 계속 추진할 것 단, 속도 조절은 불가피”

〈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

## 프라임사업 탈락 그 이후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지난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프라임(PRIME)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학교는 학내 구성원의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최종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약 10개월 동안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60여 차례가 넘는 구성원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소통이 부족해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다. 우리 신문은 이번 프라임사업 탈락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선과 이를 통해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프라임사업은 정부와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게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연간 150억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대형사업), 우리학교는 기존의 연계협력 클러스터와 부합한다는 명분으로 사업 참여 뜻을 밝혔다. 우리 신문은 그 동안 프라임사업 준비를 총괄적으로 진행해온 미래정책원(미정원)을 취재하며 프라임사업 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미정원은 당시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월 말 프라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프라임사업 계획을 위한 워크숍, 소통위원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3월 21일 총장 주재 워크숍으로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 전까지의

소통은 마무리됐고, 3월 31일 미정원은 프라임사업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5월 3일 프라임사업 선정 발표 결과, 아쉽게도 우리학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 발표 후 대학은 총장 서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내용에서 충분치 않아 궁금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미 프라임사업에 탈락한 몇몇 대학들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출했던 계획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측은 “지원금 없이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중앙대도 정원조정 계획을 원점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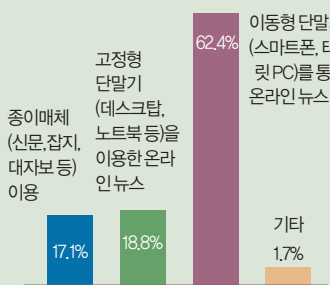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학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계획을 유지할 것”이라며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미정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프라임사업 만을 위해 이번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학교가 나아가려고 했던 바와 교육부가 제시한 프라임사업의 방향성이 부합했기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해 선정됐을 때만큼 빠른 추진은 힘들겠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탈락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원장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지표나 점수를 공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탈락원인은 우리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만 선정된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의 계획서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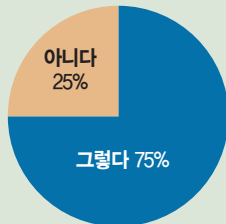
▶4면으로 이어짐

## ‘구성원 교내 미디어 이용’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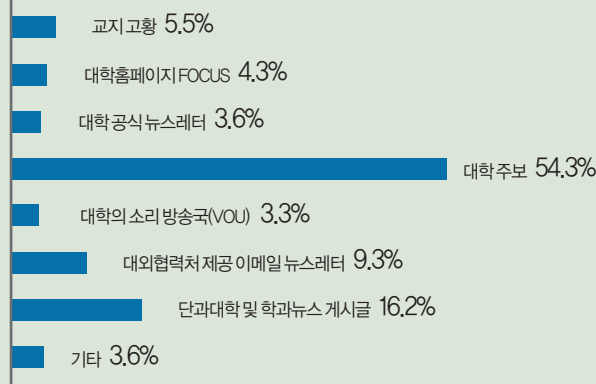
### Q1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학내뉴스를 이용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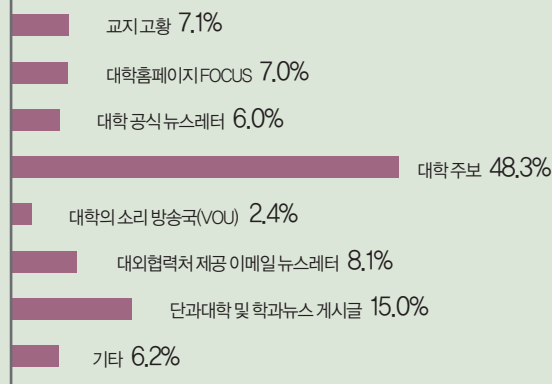
### Q2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십니까?



### Q3 아래 매체 중 학내뉴스를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 Q4 아래 매체 중 학내뉴스를 이용할 때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 조사기간 : 2016.05.09.~2016.05.16. / 조사방법 : 이메일 대량 설문조사

▶관련기사 : 9면

## Newsmaker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  
주성재 (지리학) 교수



## “지명에 사람 이름 붙일 때가 가장 신중해진다”

류제원기자 jennyoo95@khu.ac.kr

#. 이순신대교, 위례터널, 카이스트 교(橋)…。 우리 주변 산과 다리, 건물엔 저마다의 이름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런 이름을 결정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가지명위원회다.

주 교수는 지난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단체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는 연간 500여 개의 지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그런 그에게 이름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는 ‘이름’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이름에는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 그리고 기억이 들어있다”며 “이름은 단지 그 사물뿐만 아니라 지역성, 그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까지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 이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감정

주 교수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짓거나,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할 지역 주민의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실제로 지난 3월 충청북도에 있는 ‘원통산’이 기존 한자인 ‘원망하다(怨)’와 ‘서럽게 울다(慟)’에서 ‘둥글다(圓)’와 통하다(通)’로 바뀐 사례를 들며 “그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명 대상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 간 갈등이 지명 결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가령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을 잇는 다리의 경우, 두 지

역이 다리 이름으로 각각의 이름을 주장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 “알아보니 군산의 시화와 서천의 군화가 동백꽃으로 동일했다”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각 행정단체에 꽃의 이름을 판 ‘동백대교’를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 동백대교라는 이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물론, 지명을 심의하는 기준은 있다. 지명이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안전이 상정됐는지, 도의적 원칙에 맞는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주 교수는 “생존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붙이지 않으며, 죽은 인물이라도 일정 기간 평가를 거친 후 그 사람의 업적을 엄밀히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국가지명위원장 이외에도 ‘동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동해연구회에서는 지도에 ‘동해’ 영문표기 업무를 담당한다. 주 교수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동해는 단순히 지명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그것을 부르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느낌, 감정까지 다 포함된 이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본 사람들도 고려해 병기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UN지명전문가그룹회의’에도 10년 넘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우리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서야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냐”며 미소를 지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⑭

김병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현대 사회에서 돈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지불 수단이며, 가치 척도로서 기능한다. 학계에서는 화폐의 이러한 기능을 주로 연구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여기서 몇 단계 더 나아가간다. 짐멜은 〈현대 문화에서의 돈〉(1896)이라는 에세이에서 근대적인 사회결합과 개인주의, 물신(物

神) 숭배, 근대적 세계상을 돈과 화폐경제로 분석하는데, 이 에세이에서 짐멜은 돈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 즉 문화나 사회관계의 이



짐멜은 돈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 즉 문화나 사회관계의 이중성과 모호성에 주목한다.

중성과 모호성에 주목한다. 결합, 연결, 관계, 끈, 얽힘, 거리, 해체 등 다채로운 연관어도 돈과 화폐경제에 의해 형성되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을 환기시킨다.

짐멜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사회는 인격적 유대에 기반한 사회적·도덕적 책무로 결합한 ‘삶의 공동체’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결합은 자본주의, 도시화와 산업혁명 등의 여러 충격으로 해체된다. 그 중에서 특히 화폐경제의 발전은 금전적인 거래에 기초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게 했다. 즉, 돈은 비인격적이고 특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과 집

단을 순수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새롭게 결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화폐 거래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인간 소외의 비극을 낳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 짐멜은 화폐 경제가 근대인에게 경제행위에 미증유의 비인격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양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돈에 의한 의무의 지불로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해방되고, 극단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11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사령

면  
〈편집장〉 이시은 기자(컴퓨터공학 2011)

명  
〈편집장〉 김도엽 기자(정치외교학 2012)

### 정정보도

1606호 4면 ‘통섭적 인재 가물가물 … 설립 목적 상실한 자율전공학과’에서 타 학과 전공은 ‘자유이수학점’이 아닌 ‘기타학점 공통’으로 이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정정합니다.

이번 호는 개교 67주년, 대학주보 창간 61주년 기념  
특별 호로 12면 발행됩니다.